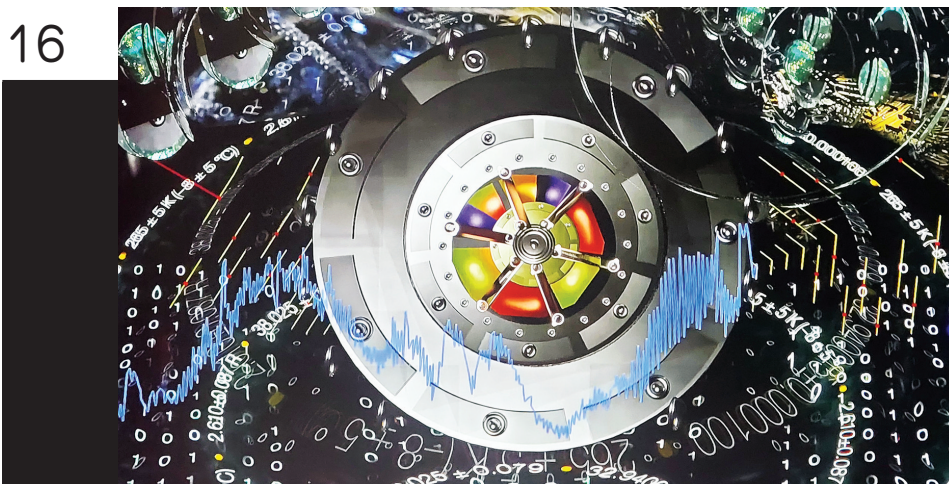




지맵이 코드 기반 예술을 조명하는 '코드, 하나의 캔버스: AI시대의 창의적인 그래픽'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선보인다. 카멘 다플리르 작 '별빛 삼부작'.

컴퓨터에 정보를 표시하는 기호 체계를 일컬어 코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코드는 '규칙', '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에 반해 코딩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구현하는 기술을 뜻한다.

오늘날 코드 기반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시각 언어와 감각적 표현이 예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지맵·센터장 김허경)이 코드 기반 예술을 조명하는 '코드, 하나의 캔버스: AI시대의 창의적인 그래픽'을 오는 8월 31일까지 선보인다.

주제가 말해줄듯 언어는 작품을 구현하는 '물감'이자 동시에 구현이 실현되는 '캔버스'라는 의미로 상정된다. 다시 말해 언어를 매개로 디지털 상에서 무궁무진한 창의적인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아트센터나비와의 협력 전시로 펼쳐지며 코드를 토대로 한 세계적인 그래픽, 타이포그래피 전문가와 예술가가 참여한다. 피터 조를 비롯해 밥 파우스트, 잭 리버만, 오미드 네말하비, 수잔 디토로이, 레나타 아니세프스카, 카렌 라플리르 등 7명이다.

목흥균 학예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드를 예술적, 창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이번 전시의 의미가 있다"며 "언어 중심의 그래픽의 다채로운 세계, 무한한 변화 가능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시는 크게 두 주제로 펼쳐진다. 먼저 첫 번째 '형태로서의 코드'는 코드가 이미지 구조, 언어의 변환, 움직임의 법칙에 어떻게 관여하고 개입하는지 탐구한다. 작가들은 타이포그래피, 인터랙션, 알고리즘 반복 구조를 매개로 이미지와 언어의 리듬과 형태를 그들만의 감각과 방식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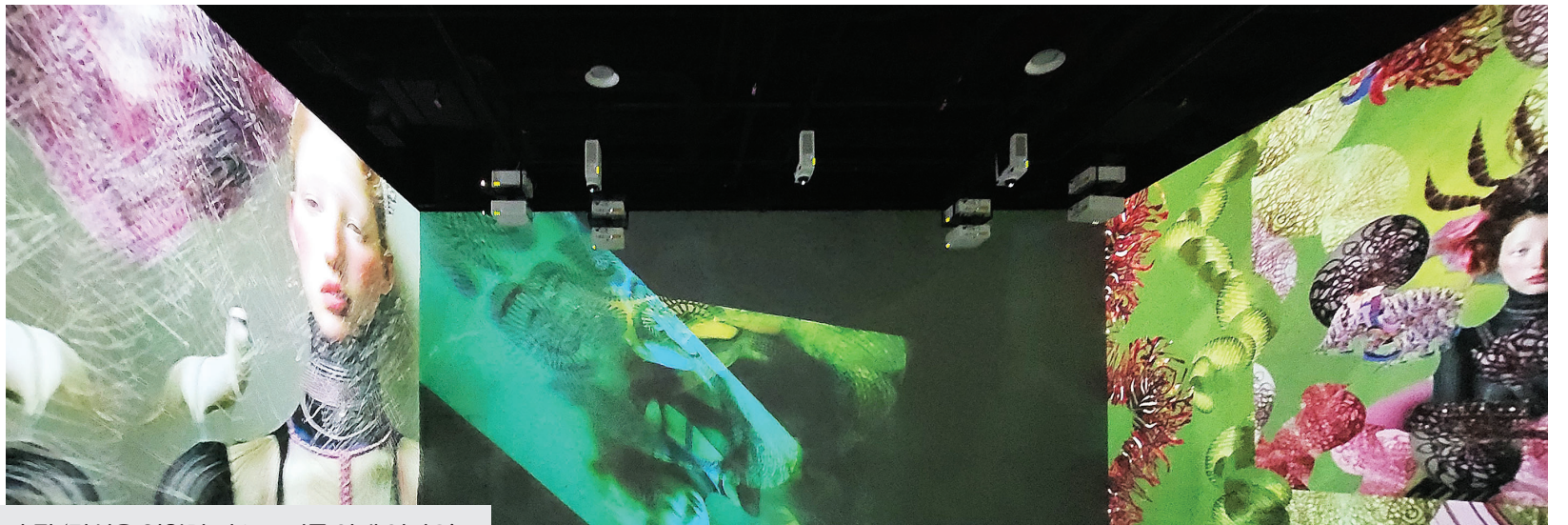
피터 조의 '한글스캐이프'는 한글과 영어를 모티브로 두 언어의 우연한 교차에 초점을 맞췄다. 영상에 흐르는 동작은 짧은 시처럼 구성되는데 두 언어의 유사성과 교차점이 흥미롭다. 인터랙티브 설치에서는 관객이 키보드로 두 언어를 입력하고 이중 문자 구조를 탐색할 수 있다.

피터 조의 관심은 언어가 지닌 보편적 생명력이다. 언어가 소통의 매개체이지만 경우에 따라 이해 또는 오해의 상황을 낳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특히 장면 가운데는 '삶'과 'life'가 무한 반복되는데, 연계와 존재의 움직임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다.

잭 리버만의 '퓨처 스케치스 그룹의 타이포그래피 실험들'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된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코드는 확

일화된, 기술적 부분에만 활용되는 도구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MIT 미디어 랩의 퓨처 스케치스 그룹은 '예술가나 디자이너 등이 상상력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이어왔고 이번 작품은 그러한 고민의 산물이다.

작품은 코드에 가한 사소한 수정만으로도 뜻밖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양상에 주목한다. 목 학예사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그것을 실현하는 예술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패턴을 만든다"며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은 코드를 도구적 개념이 아닌 시각적 언어를 풀어내는 붓질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



레나타 아니세프스카 작 '당신은 영원히 디스코 리듬 안에 있어요'

국적·문화·장르...예술의 경계를 넘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국제 레지던시 참여작가전...8월 21일까지

국적과 장르를 넘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국제 레지던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펼치는 전시(8월 21일까지)가 그것.

릴레이 전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중국 작가 위안 리를 비롯해 스웨덴·독일 국적의 크리스토프 무게, 미국 작가 시오반 맥브라이드, 대만 출신 은 파오 렌 쿵, 인도네시아 루스 마본 등이 참여한다. 국내 작가로는 서영기가 동참했다.

오는 22일부터 관객을 만나는 시오반 맥브라이드는 'Homebody'로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뉴욕 자택 내부를 형상화한 작품은 이국적이며 이채롭다. 다양한 사물과 오브제들이 무질서한 듯 나름의 규칙에 의해 배열된 모습은 '가정적인'이라는 의미를 담은 주제 'Homebody'를 연상케 한다. 집 안의 내부를 섬세하게 정리한 집주인의 감성이 배어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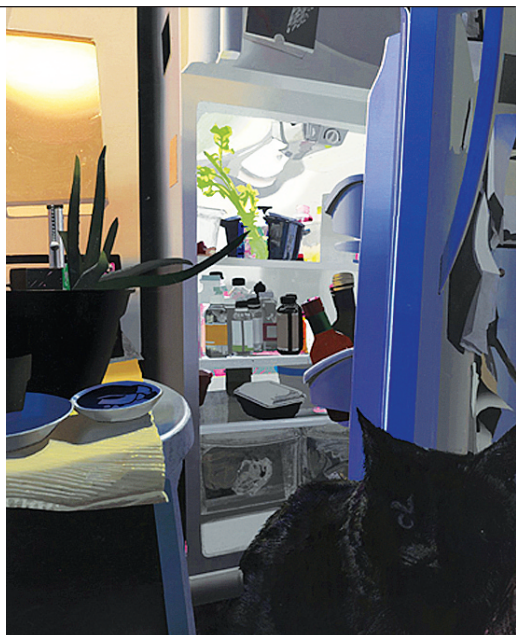
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이탈리아계 가정에 입양된 서사를 '집'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기억, 정체성 등을 미려하게 탐색한다. 특히 시오반 맥브라

이드는 서영기 작가와의 콜라보를 통해 드로잉, 공간음향 작업이 결부된 작품으로 한국에서 뉴욕의 집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파오 렌 쿵 작가의 'he space itself and the materiality'는 전시 공간인 글라스폴리곤 갤러리 공간을 모티브로 작품을 구현했다. 공간이 내재하는 물질성을 작가가 어떻게 풀어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관객들은 작가의 사유 체계가 어떻게 사물과 물질에 투영돼 의미있는 작품으로 전이됐는지 저마다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 릴레이 전시는 루스 마본 작가가 장식한다. 'The black ink is coming'라는 주제가 상징하듯 기록에 초점을 둔 작품이 관객을 맞는다. 디자인을 공부한 마본 작가는 회화보다 순수 패션 디자인 관련 작업을 해왔다. 여성성, 감정에 토대를 둔 이번 전시에서는 기록이 환기하는 직관적인 감각의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오는 30일에는 오픈스튜디오 형식의 토크 익스비전, 오픈 베이스먼트, 영화감독 이재환 작가를 필두로 한 영상을 상영하는 타이니 필름 스크리닝 프



시오반 맥브라이드 작 'Homebody'

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현기 대표는 "레지던시 작가들의 전시는 국적, 문화, 장르라는 경계를 넘어 펼쳐진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빛고을이라는 지역에서 이들의 작품과 창작세계가 어떻게 구현되고 관객들에게 의미있는 울림으로 다가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쾌한 오페라가 찾아온다

광주시립오페라단 '피가로의 결혼'...25~26일 광주예술의전당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릴 유쾌한 오페라가 관객을 찾아온다.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최철)이 제19회 정기공연으로 모차르트의 대표 희극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오는 25일(오후 7시 30분)과 26일(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프랑스 극작가 보마르셰의 희곡을 바탕으로, 모차르트와 대본가 로렌초 다 폰테가 완성한 이 작품은 18세기 유럽 사회를 배경으로 계급과 권위에 대한 풍자를 담은 오페라 부파의 고전이다. 피가로와 약혼녀 수잔나,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려는 알마비바 백작 사이의 갈등은 유쾌한 반전과 따뜻한 감동을 자아내며 수백년간 전 세계 무대에서 사랑받아 왔다.

이번 공연은 원작의 정수를 살리되, 현대적 감각의 연출로 재해석했다. 연출은 김여진이 맡아 소극

장 공간의 밀도감을 살린 직관적 무대를 구성하고, 지휘자 김덕기가 이끄는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 특유의 섬세하고 풍성한 선율을 책임진다.

출연진도 기대를 모은다. 재치 넘치는 하인 '피가로' 역에는 바리톤 구성범과 박성훈이, 총명한 하녀 '수잔나' 역에는 소프라노 이동민과 장지애가 더블 캐스팅됐다. 알마비바 백작과 백작부인 역에는 각각 바리톤 김지욱·김광현, 소프라노 박수연이 출연해 풍부한 감정과 드라마를 이룰 예정이다.

특히 영화 '쇼생크 탈출'에도 삽입돼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이중창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와 백작부인의 아리아 '그 행복했던 날들은 어디에' 등 다채로운 명곡들이 관객의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철 예술감독은 "이번 무대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빛나는 고전 오페라의 정수를 유쾌하고 진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아트웍.

〈광주시립오페라단 제공〉

되게 담아낸 무대"라며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여름 공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석 2만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티케팅크에 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G.MAP, 8월 31일까지 'AI시대의 창의적인 그래픽' 전
아트센터나비 협력...세계적 그래픽·타이포그래피 예술가 참여

‘코드’는 도구를 초월한 붓질이자 캔버스

했다.

두 번째 주제인 '시적인 기계'에서는 여성성 외에도 생태, 우주적 창의성과 같은 확장된 주제로 접근한 작품을 보여준다. 몰입형 공간, 미디어월에서 상영되는 작품은 스펙터클하면서도 역동적이다.

레나타 아니세프스카의 '당신은 영원히 디스코 리듬 안에 있어요'는 빠르게 전개되는 이미지와 음악적 요소, 서사적 구조 등이 결부된 작품이다. 디스코볼이 회전하는 동안 세련된 베네치아인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유희를 즐긴다.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기묘하면서도 환상적인 클럽 세계로 초청되

며 무빙 이미지 작품이 선사하는 시청각적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김허경 센터장은 "연구자이자 예술가의 경계를 오가는 작가들은 코드가 구현하는 다채로운 예술의 세계를 이색적이면서도 감성적으로 보여준다"며 "예술과 기술, 이성과 감성, 주관과 객관이 융합되고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예술적 세계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료 관람이며 개막식은 15일 오후 5시. 작가 고힌의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한도의 황한 산수와 호남 남종화 세계’

〈荒寒〉

광주시립미술관, 30일 조송식 조선대 교수 런치토크

‘세한도’는 조선시대 제주도에 유배된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이다. 국보(제180호)로 지정돼 있으며 의연히 서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추운 날씨가 돼야 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역경에 직면했을 때 지조와 뽄뽄이가 드러난다는 의미다. 또한 ‘세한도’는 남종 문인화의 다양한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면들이 있다.

세한도를 모티브로 남종 문인화의 세계와 호남 남종화를 조명하는 강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남도 한국화 명작전 '마음, 예술가의 혼을 담은 한국화'와 연계한 런치토크를 오는 30일(오후 12시) 세미나실에서 연다. 조선대 미술대학 조송식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주제는 '세한도의 황한(荒寒) 산수와 호남 남종화 세계'.

조 교수는 이번 강좌에서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 남종화와 호남 전통 남종화 거장들의 작품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림에 대



조송식 교수

한 설명도 한다.

조 교수는 청명 임창순 선생에게 2년간 동양화론을 배웠으며 서울대 대학원 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역사적 관점에서 동양화론을 정리하고 동양화론을 번역했다.

윤의 관장은 "이번 런치 토크는 남도 한국화 명화전과 연계한 강좌로, 특히 세한도를 매개로 한국 남종화 및 호남 남종화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라며 "우리의 전통미술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심미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여 희망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50명. 참석자에게는 '마음, 예술가의 혼을 담은 한국화' 전시 도록이 제공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영화제, 장·단편 영화 27일까지 공모

매혹적인 이야기와 시선을 지닌 여성영화.

제16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오는 27일까지 장편과 단편 부문의 영화 공모를 진행한다. 매년 11월 열리는 광주여성영화제 '퀸'은 전라도 방언으로 '가장 매력적인', '특별한 매력이 있는'이라는 뜻이 담겼다.

올해 슬로건은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세상, 모두를 위한 축제'. 올해부터 장편 부문을 새롭게 신설하며 여성 서사의 스펙트럼을 한층 넓힐 예정이다.

출품 대상은 여성 서사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장르나 연출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단편 부문은 러닝타임 40분 미만이며, 연출 편수에 제한이 없다. 장편 부문은 40분 이상 분량으로 연출 경험이 2편 이하인 감독만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은 2024년 9월 이후 완성된 작품으로, 접수는 27일 자정까지 광주여성영화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예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본선 진출작은 오는 11월 6일 개막



지난해 제 15회 광주여성영화제에서 권 작품상을 수상한 심이안 감독 '빼고'. 〈광주여성영화제 제공〉

하는 제16회 영화제에서 '퀸 당선작' 선택 등을 통해 상영된다.

수상작은 폐막식에서 공개되며 장편 부문은 작품상 300만원·심사위원특별상 100만원·관객상 100만원이, 단편 부문은 작품상 100만원·심사위원특별상 50만원·관객상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광주여성영화제 집행회 집행위원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여성 서사를 담아낼 신진 창작자들이 무대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